



NARS 지표로 보는 이슈

제162호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장영주*

배경

- 식품자급률(Food Self-Sufficiency Rate)은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수준을 계산한 지표로, 정부는 식품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제7조와 제14조에 따라 5년 주기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품목별 자급률 현황과 목표달성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주요내용

-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식용 목적의 식량자급률은 1995년 이후 급격히 감소추세임
 - 곡물자급률은 1980년 56.0%에서 2019년 21.0%로 35.0%p, 식량자급률은 각각 69.6%에서 45.8%로 23.8%p 감소함
- 대규모 곡물 수출국들은 육류 자급률이 높고, 채소, 과실류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식용 곡류자급률이 낮음
- 「'22년도 식량 및 주요 식품자급률 목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목표 대비 2018년 자급률의 달성도는 대부분 80% 이상이나 밀

(7.1%), 옥수수(8.5%), 콩(13.9%)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지난 20년간 식품자급률의 구성요소인 국내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총 생산량만 소폭 감소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임
- 1990년 이후 곡류 외 자급률은 계란을 제외한 동·식물성 식품 모두 크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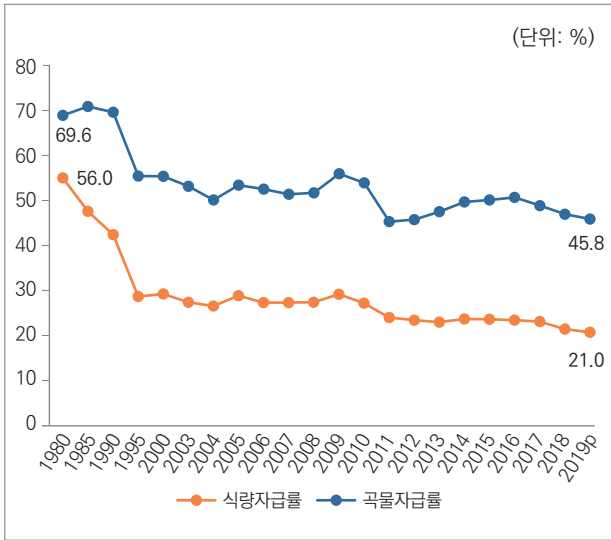
시사점

- 비상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과 국내 농업 유지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고려하여 필수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자급률 제고 대책을 우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부식 곡물 중 밀, 콩 등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률이 미미한 품목의 종자, 생산, 수입, 유통, 소비단계 연계 대책과 해외곡물 확보 체계를 총괄하여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향후 품목별로 국내 농업 생산 인프라 규모, 소비 규모와 용도를 고려한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조직 확대, 통계체계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02-6788-4595, jjkjm@assembl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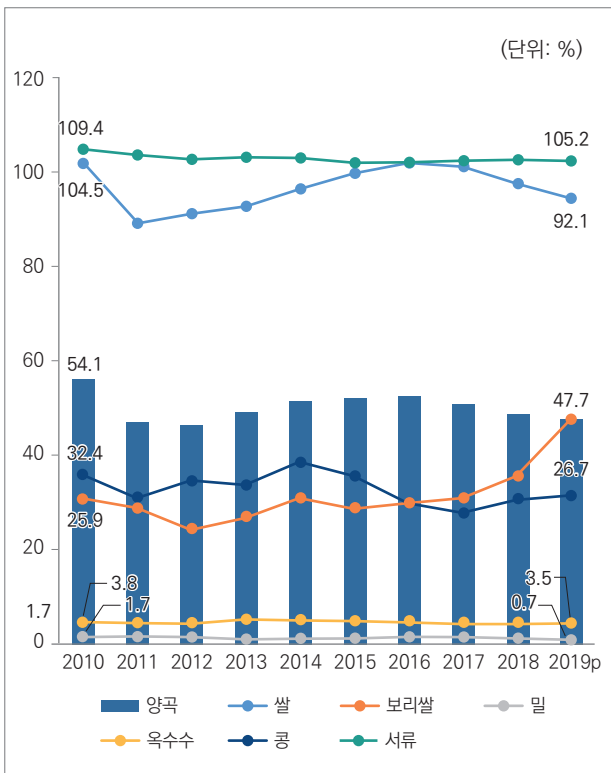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주: 곡물자급률(%)=생산량/(수요량-(해외원조+수출))×100
 식량자급률(%)=생산량/(수요량-(사료+해외원조+수출))×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9.8., pp.33-35.;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20.10.21.

-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계속 감소추세임
 - 곡물자급률은 1980년 56.0%에서 2019년 21.0%로 지난 40년간 35.0%p 감소함
 - 특히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이 감소한 2008년을 제외하고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30% 이하로 감소하여 20% 초반대까지 하락함
- 식용 목적의 식량자급률도 199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50% 이하 수준임
 - 국제곡물파동이 발생하여 일시적인 수입량 감소로 인한 자급률 증가를 보인 2008, 200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 추세임
 - 식량자급률은 1980년 69.6%에서 2019년 45.8%로 지난 40년간 23.8%p 감소함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주: 두류에는 종실류 및 견과류가 포함되며,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되며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김상호 등,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20.10.21.

- 식량정책의 주요 품목인 양곡의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면, 2010년 54.1%에서 2019년 47.7%로 지난 10년간 6.4%p 감소함
- 양곡류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를 보인 곡물은 보리임
 - 보리쌀 자급률은 2010년 25.9%에서 2019년 47.7%로 지난 10년간 21.8%p 증가함
- 지난 10년간 등락을 보이며 자급률이 감소한 양곡은 쌀, 밀, 콩, 옥수수, 그리고 서류(감자, 고구마)임
 - 지난 10년간 주식인 쌀은 가격 문제로 인한 쌀 생산조정제 실시, 의무수입량(MMA)과 대북 지원 중단 등으로 2010년 104.5%에서 2019년 92.1%로 12.4%p 감소함
 - 동 기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은 2010년 1.7%에서 2019년 0.7%로 1%p, 콩은 2010년 32.4%에서 2019년 26.7%로 5.7%p, 옥수수는 2010년 3.8%에서 2019년 3.5%로 0.3%p 감소함
 - 자급률이 높은 서류도 2010년 109.4%에서 2019년 105.2%로 지난 10년간 4.2%p 감소함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단위: %)

국명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계란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한국	21.9	94.3	7.5	87.2	75.4	75.2	99.4	49.8	51.2	1.2
일본	24.5	75.2	5.2	86.7	43.5	52.3	100.5	76.5	53.7	64.9
미국	126.5	101.5	162.2	95.6	75.6	115.4	106.5	103.8	70.2	94.5
영국	87.7	76.1	75.8	41.4	4.9	69.3	88.2	82.0	54.7	54.0
캐나다	203.6	163.6	273.9	58.0	18.5	135.2	95.4	93.8	96.1	196.5
덴마크	116.9	125.0	97.1	48.4	9.4	309.1	82.8	213.9	279.6	75.9
프랑스	193.0	140.4	91.2	84.1	59.8	97.8	101.2	135.9	30.5	85.3
독일	116.7	138.1	45.2	43.9	27.4	114.2	71.9	130.8	24.4	87.9
이탈리아	68.3	46.0	68.6	160.6	113.2	79.3	90.5	69.3	19.4	29.4
스페인	75.3	62.6	75.8	218.5	174.4	125.4	109.9	71.4	60.5	111.6
스웨덴	112.2	81.1	58.8	41.1	4.1	62.9	96.3	86.8	51.6	44.2
스위스	45.0	77.6	40.2	47.4	40.9	80.1	55.1	101.9	1.9	50.0

※ 자료: 김상호 등, 「2018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12., p.238, p.245를 정리함

- 각국의 농업, 식품 생산과 식생활이 상이하여 식품자급률을 국가별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곡물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는 식용 곡류자급률이 낮으며, 대규모 곡물 수출국들은 육류 자급률이 높고, 채소, 과실류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임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식품명	2018년			2022년 자급률 목표(%)	달성률(%)
	국내생산량(천 톤)	국내소비량(천 톤)	자급률(%)		
쌀	3,972.0	4,814.0	82.5	98.3	83.9
보리	103.0	329.0	31.3	36.6	85.5
밀	27.0	3,698.0	0.7	9.9	7.1
옥수수	73.0	9,893.0	0.7	8.2	8.5
서류	848.4	899.4	94.3	109.0	86.5
콩	86.0	1,372.0	6.3	45.2	13.9
채소류	9,185.9	10,536.2	87.2	89.5	97.4
과실류	2,160.5	2,866.3	75.4	77.4	97.4
소고기	237.0	653.0	36.3	42.6	85.2
돼지고기	978.9	1,367.3	71.6	78.6	91.1
닭고기	860.1	956.6	89.9	83.2	108.1
계란류	646.9	650.5	99.4	99.6	99.8
우유류	2,079.5	4,175.6	49.8	54.5	91.4
수산물	3,754.4	5,418.0	69.3	85.3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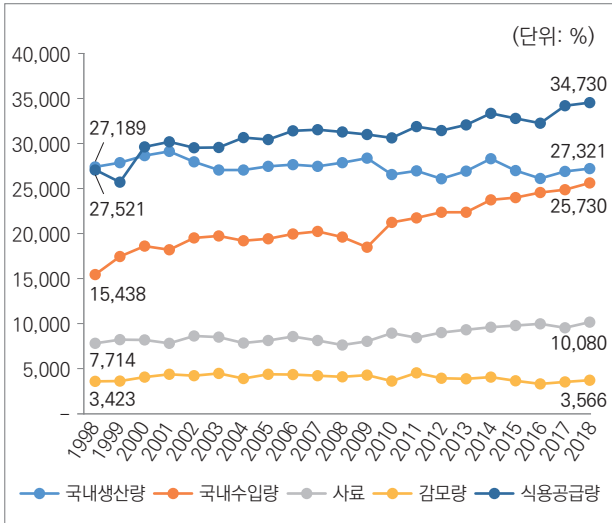
※ 주 1: 달성률(%) = 품목별 2018년 자급률/2022년 품목별 목표자급률 × 100(수산물은 2020년 달성목표임)

주 2: 수산물은 어패류와 해조류를 합산함

※ 자료: 「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03호, 2018. 8. 29., 일부개정, 시행 2018. 8. 29.); 「'22년도 식량 및 주요 식품자급률 목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8-13호, 2018.3.5. 제정, 2018.3.11. 시행); 김상호 등, 「2018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12., p.238을 정리함

- 「'22년도 식량 및 주요 식품자급률 목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목표자급률 대비 2018년 자급률의 달성도는 대부분 80% 이상이나 밀(7.1%), 옥수수(8.5%), 콩(13.9%)은 매우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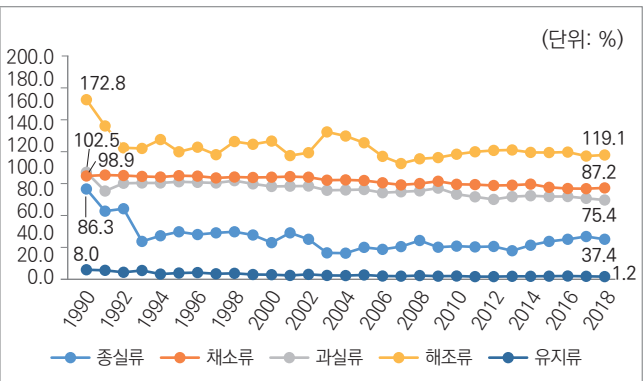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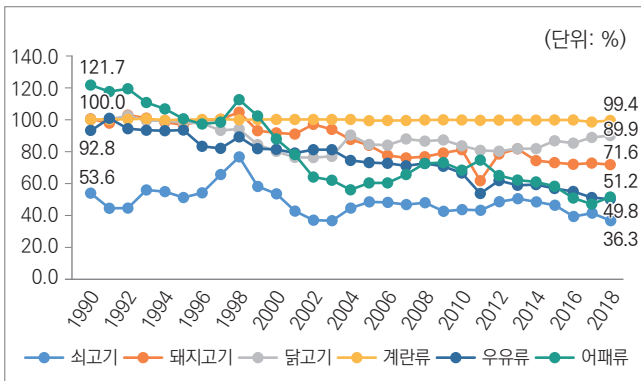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주: 주류 포함이며 2018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김상효 등, 「2018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12., pp.24-31., 114-151.을 정리함

- 지난 20년간 식품자급률의 구성요소인 국내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총 생산량이 소폭 감소된 것에 비해 나머지 항목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총 생산량은 1998년 27,521천 톤에서 2018년 27,321천 톤으로 연평균 0.036% 감소하여 정체 수준이나 식용 식품공급량은 27,189천 톤에서 34,730천 톤으로 연평균 1.30% 증가함
 - 동 기간 총 수입량은 15,438천 톤에서 25,730천 톤으로 연평균 2.73%, 사료량은 7,714천 톤에서 10,080천 톤으로 연평균 1.42% 증가함
 - 데이터 구성, 통계방법 등 타당도 개선이 필요한 감모량은 동 기간 3,423천 톤에서 3,566천 톤으로 연평균 0.22% 증가함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자료: 김상효 등, 「2018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12., pp.240-241.을 정리함

- 1990년에서 2018년 사이 동물성 식품 중 수입이 어려운 계란류(100.0%→99.4%)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자급률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동물성 식품의 자급률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소고기(53.6%→36.3%), 돼지고기(100.3%→71.6%), 닭고기(100.0%→89.9%), 우유류(92.8%→49.8%), 어패류(121.7%→51.2%), 유지류(8.0%→1.2%), 식물성 식품인 채소류(98.9%→87.2%), 과실류(102.5%→75.4%), 종실류(86.3%→37.4%), 해조류(172.8%→119.1%) 모두 감소 추세임

「지표로 보는 이슈」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 사이트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